

어린이가 함께 읽는 유성구 마을 매거진
vol.2

고리





55

✓ 어린이가 함께 만드는
유성구마을매거진
고리 
by:TY

55



[Editor's note]

어린이들이 부른다

‘버찌 이모’, ‘버찌 쌤’, ‘사장님’, ‘선생님’

책방에서 아이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다. 책방지기를 만났던 상황이 다 달랐기 때문일텐데, 호칭이 통일되지 않았어도 괜찮다. 아이들이 나를 불러줄 때 김춘수 시인의 한 송이의 꽃처럼 미소가 절로 피어난다.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스스로 정의한 이름으로 책방 이모를 찾는다는 건 그만큼 관계를 통해 함께 쌓아온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집, 학교, 학원 밖에서 어린이들이 어른을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 동네 어린이들에게 자주 가는 단골 가게가 있을까? 어린이들이 책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해본적 있나? 일회적 체험이 아닌 꾸준한 만남을 통한 인간적인 경험, 그 날 그 자리의 정서를 나눌 수 있는 사이. 그런 어른이자 공간으로 남고 싶었다.

유성구 마을 교육 사업 예산으로 작은 책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책방에 오는 어린이들과 함께 지역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보는 일이었다. 아니, 책이라고 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거창한 느낌이다. 작은 문집이나 잡지 형태의 기록물이어도 충분했다.

‘어린이와 함께 엮는 마을 경험 이야기, 마을 매거진’이라는 큰 그림의 세부 내용을 채우기 위해 평소 책방을 통해 인연을 맺은 이들과 접점을 만들었다. (사람

과 사람, 책과 사람, 공간과 사람, 마을과 사람을 잇는 연결고리. 마을 매거진의 이름을 ‘고리’라고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책을 읽으며 마음이 가까워진 벗들은 어린이 마을 교육 사업을 위해 서로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동네 카페 사장님, 동물병원 원장님, 디자인 스튜디오 실장님 등 어린이들에게 세상으로 향하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게끔 도와준 책방 곁에 어른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를 보태 주었다.

매거진 출간을 정식으로 알리게 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책과 갓 나온 뜨끈한 백설기를 나눠 먹으며 따뜻하고 달근한 순간으로 ‘공동체’를 감각했다. 어린이와 다른 세대가 교류하는 순간이자, 평소와 다른 온도와 밀도의 시간이기도 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업을 신청했고, 작년에 함께 한 활동가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활동가 친구들에 기대어 무더운 여름과 가을을 많이 웃으며 보낼 수 있었다. 내 일 네 일 구분 없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내가 사는 마을,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시간, 그 시간 만큼은 함께 명랑했다.

저마다 고유한 기록 조각들을 모아 두번째 마을 매거진을 엮는 내내 바랐다. 마을 활동 현장 공기에 흐르던 명랑함이 읽는 분들에게 전달 되기를. 그 명랑이 주변의 어린이와 마을 이웃들을 전보다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바라보는 다정함이 되기를. 편집하는 동안 페이지를 채우고 다음 페이지를 추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또한 작게나마 길을 만들어 가는 거라 생각했다.

“저기 버찌 이모, 아니아니 선생님! 뭐 좀 물어봐도 되요?”

어린이들이 부른다. 이모든 선생님이든 아무렴 어떠랴. 마을 활동으로 만난 어린이들에게 ‘이웃’으로 남는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 덕에 어린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더 나은 어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누린 것 같다. <매거진 고리>는 마을에서 함께 했기에 경험할 수 있었던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활동가들의 마을 이야기

3. 8월의 생태 이야기

- 오호 만들기 / 에코백 꾸미기 / 까먹어도 될까요 동화 읽기

4. 9월의 마을 이야기

- 달님 편지 / 빨간 우체통 / 현충원 산책

5. 어린이책 읽는 사람들

- 오세란 청소년문학평론가

- 어린이도서연구회를 소개합니다!

- 새벽에 읽는 엄마들 : 이아독 독서모임 이야기

6. 대전 출판, 이유출판의 이유 있는 10년

7. 나의 동네를 말하기 : 어린이, 청소년 기고



2024년 매거진 고리 마을 활동가들의 들어가는 말



마을 잡지 고리, 안에는 또 다른 마을이 펼쳐집니다. 아이들의 밝음, 순수함, 즐거움, 열정이 가득한 마을입니다. 마을회관 같은 버찌 책방에서 아이들이 모여 재잘재잘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뛰어놀기도 하며 어른들과 함께 새로운 활동으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더 밝아지고 마음속에 즐거운 노래가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여행이 시작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고리』를 읽으며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활동가 한성희)

여름의 활기찬 설렘과 열정으로 시작한 『고리 vol.2』가 가을의 과실나무처럼 풍성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쏟으며 무한한 애정을 느끼는 공동체였습니다. 힘들 때 서로를 챙겨주고, 주변의 어린이를 보듬고, 학교 안팎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개인-가족-마을-나라-세계, 개인의 일이 세계로 확장되듯 우리가 서로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세상이 훨씬 살맛 날 것입니다. 지금 발 딛고 선 곳에서 우리 마을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당신에게도 선물합니다.

(마을 활동가 정지혜)

사계절을 지나오며 마을활동가로서 유념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속한 주변, 우리 마을이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내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 즐거운 이야기가 곳곳에 있어 찾아 듣는 재미가 있는 곳, 다정한 손을 건네주는 이웃이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을에 살고 싶으신가요? <고리>의 마을 이야기와 더불어 여러분이 꿈꾸는 마을이야기도 함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을 활동가 김지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마을 매거진 『고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마을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이름을 기억해 부르는 일이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여름이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에 귀 기울였던 시간은 선명한 사진이 되어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만들며 함께 걸은 시간이 어린이와 어른을 잇는 하나의 연결 ‘고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을 활동가 조수정)

지난 2023년 여름 버찌책방의 “어린이들이 취재하는 우리 마을 이야기” 마을 매거진에 어린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꼭 참여시키고 싶어서 떨리던 손으로 신청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책을 함께 읽고 반석천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면서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마을을 가꾸고 아끼는 마음이 자라났어요. 마을 매거진 두 번째를 함께하게 되어 저와 아이가 동네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어른들의 애정과 관심이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는 희망을 싹틔게 했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떠오르며 활동하는 내내 즐겁고 보람되었습니다.

이 작은 잡지는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마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마을의 따스한 기억이 성인이 되어 서도 삶의 든든한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마을 활동가 선우정혜)

뜨거운 여름과 풍성한 가을을 지나 찬바람이 부는 겨울, 『고리 vol.2』를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니 내 아이가 우리 아이들로, 내가 우리로, 내가 사는 곳이 우리 마을로 확장되는 기쁨과 감사함이 남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일 겁니다. 더 많은 곳이 평화로 깃들기를 희망합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있는 그곳에도 말이지요.

(마을 활동가 조영아)





활동가들의 마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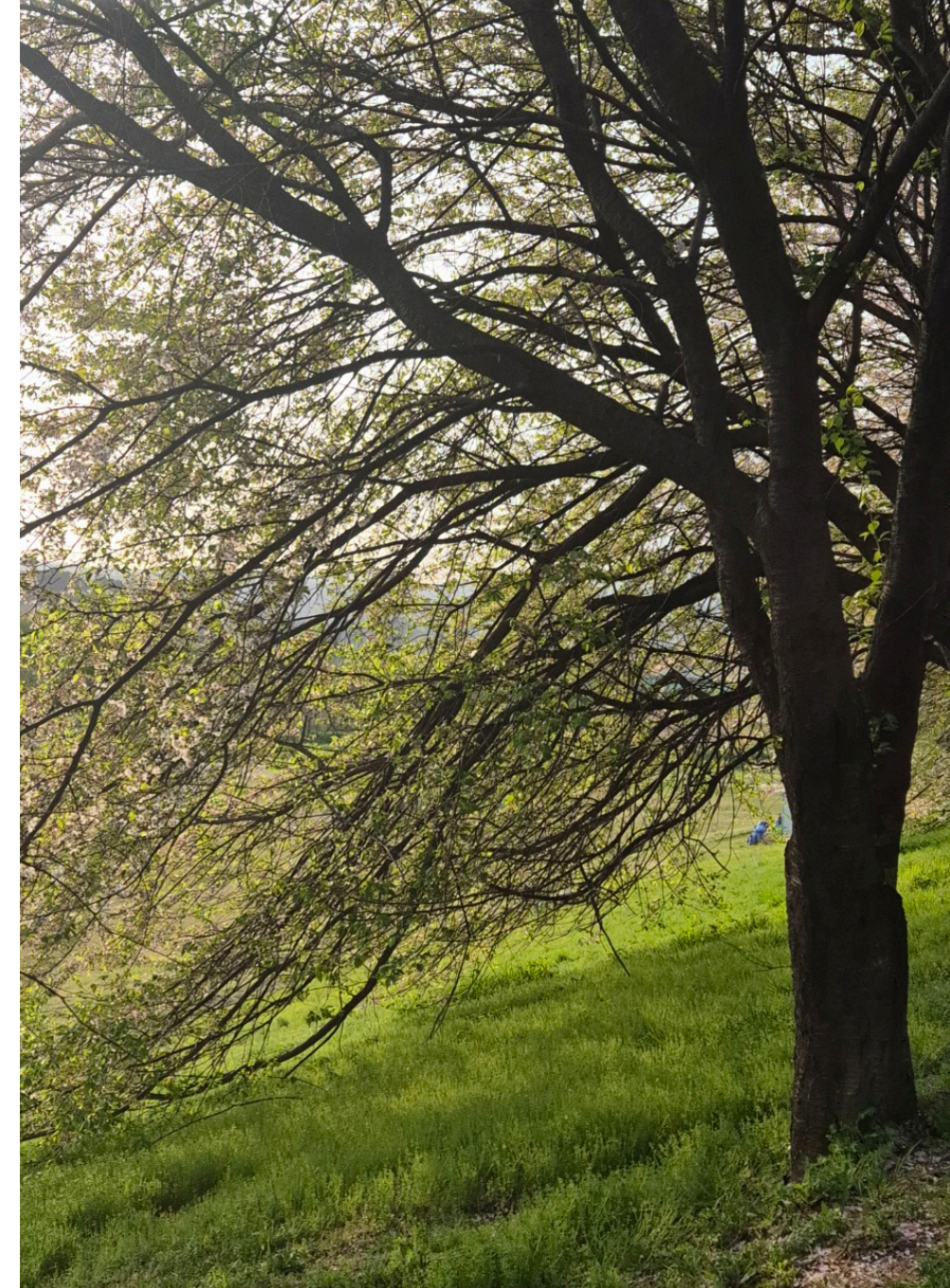
관평천에서 만난 세상, 나로부터 시선 멀어지기

(글. 마을 활동가 김지혜)

한동안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문구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트렌드처럼 자리잡았던 것은 ‘자기위안’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못해도 돼, 포기해도 돼’와 같은 위로가 달콤하게 전해졌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따뜻한 이 위로에 한없이 매달리고 싶어져 어느 순간 ‘내가 제일 소중한’라는 마음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만을 향하던 그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은 뜻밖에도 우리동네 산책길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유성구 관평동에는 관평천이 있어요. 서울에 살다 대전으로 이사와 낯선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소중한 공간입니다. 2월부터 새벽에 조깅을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어두컴컴한 새벽을 뛰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차츰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 나를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스라히 밝아지는 아침과 함께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는 그 풍경에 매료되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란 응당 사람을 찍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피사체는 당연 사람이고, 주변 풍경은 그저 사람의 배경이 되어주는 주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셀카를 가장 많이 찍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었거든요. 하지만 관평천을 뛰면서 비로서 '나' 가 아닌 '주변'이 보였습니다. '인간'이 아닌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민동 엑스포아파트의 작은 숲, 치유의 공간

(글. 마을 활동가 조영아)



나는 혼자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에서 종종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엑스포아파트는 총 4,00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로 1994년에 조성되었다. 당시에 심은 어린 나무들이 30년 세월을 거쳐 7~8층 높이까지 자라 아파트 주변 곳곳에 그늘을 내어주고, 청설모와 새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올해 초 2단지에서는 열 그루가 넘는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내고 40여 대의 주차 공간을 만들었다. 무참히 베어지고, 뿌리를 드러낸 나무들의 처참한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향기롭고 화사한 꽃, 푸른 잎으로 계절을 알리고, 그늘을 드리워 경비원 아저씨들과 오가던 사람들에게 짧은 쉼을 선사했던 곳이 영원히 사라졌다. 정말 슬픈 일이다.

아이들의 등하굣길, 주부들이 장을 보러 가는 길, 가족들이 놀이터로 향하는 길, 덩직한 나무들이 사시사철 행인들의 기분을 다정하게 보듬는다.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나뭇가지에서 머리 위로 떨어지는 차가운 빗방울은 나무가 건네는 인사다.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반짝이는 빛과 청명한 하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보라는 속삭임이다. 푹푹 찌는 더위에 걸음이 무거워지는 한여름, 넓게 드리운 그늘 사이로 부는 바람은 온몸의 열기를 식혀주는 엄마의 부채질이 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노는 사이 벤치에 앉아 책을 펼치면 마주하는 책장 위 내려앉은 그림자에 시선을 빼앗긴다. 고개를 들고 나무를, 하늘을 그리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린다. “아, 참 좋구나. 행복하다.”

제 자리에서 30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았을 나무들이 만든 이 곳을 나는 엑스포아파트의 ‘작은 숲’이라 부른다. 나무와 나무가 가지를 놓아 만든 오솔길은 치유의 공간이며, 천천히 나무를 보며 걷는 일은 나를 비우고 다시 채우는 감사의 시간이다. 지난 겨울, 두 딸이 아파트 화단에 있는 큰 나무 곁에서 가는 가지를 떨며 싹을 틔운 작은 나무를 발견했다. 지금도 그 옆을 지나칠 때면 냉큼 뛰어가 얼마나 자랐나 살피며 인사를 건넨다. 작은 생명들, 아이들, 그리고 일상 속 지친 사람들에게 소중한 이 ‘작은 숲’에 어린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무성한 잎을 틔울 수 있으면 좋겠다.

용기 내,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

(글. 마을 활동가 선우정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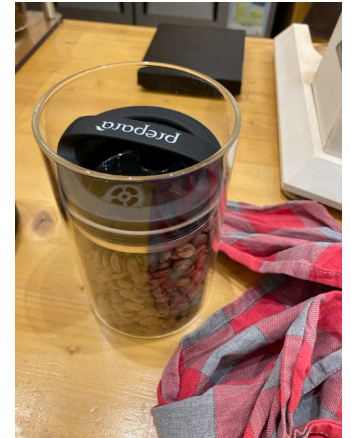
저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몸이 많이 아팠어요.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그로 인해 몸이 점점 나빠지면서 거의 모든 병원을 다녀볼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이 좋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생활을 점검해보게 되었지요. 가장 먼저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건 먹거리였어요.

장을 보고 나면 내용물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요. 그래서 포장재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한살림에 가입했습니다. 한살림은 제철이 아니면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고, 날씨 변화에 따라 공급되지 않는 물품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살림 소식지를 읽으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생겨났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일상용품을 비누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주방 비누로 시작해 샴푸 비누와 샤워 비누로 차츰 범위를 확장했지요. 다 사용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점이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비누를 잘라서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고, 아이 식기를 수저집에 챙기면서 어른 것까지 함께 챙기게 되

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어느새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2020년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73년 이후 최고의 기록이라고 했던 강수량이었죠. 평년보다 20일 더 내린 장맛비는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생각에 생활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씩 부지런해지기로 했습니다. 배달음식을 시켜 먹지 않게 되었고,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용기를 챙겨 포장해 오곤 했어요.



처음에는 용기를 내미는 손이 떨렸고, 거절당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흔쾌히 담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술 더 떠 ‘용기가 아깝기도 하고...’라며 말끝을 흐리지만, 그 속에는 환경도 지키고 제 건강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물론 저도 항상 이 생활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려고 매일 애쓰고, 손수건을 챙겨 다니며 배달 음식은 잘 먹지 않습니다. 사실 배달비도 아깝지 않나요?

용기 내 캠페인을 실천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노트드 도넛이 대전에 상륙했을 때 포장상태와 종이봉투도 구입해야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챙겨갔어요. 수많은 줄 속에서 용기를 들고 있던 제 자신이 조금 멋져보였지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얼마나 바뀌겠어?’ 싶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반석천이 흐르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동네를 사랑하고 아깁니다. 쓰레기를 줍고 산책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반석천에 사는 물고기들과 수달, 그리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무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고, 아이의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부채질을 해줍니다.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이 어찌면 저 자신을 위한 일임을 잘 알고 이 작은 노력이 내 아이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꺼이 실천하려고 합니다.

모두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내! 우리 모두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선우정혜 활동가가 직접 그린 '용기내' 우리 마을 지도

8월의 생태 이야기



사소한 관심으로 이루어질 어린이들의 희망

(글. 마을활동가 조영아)



김원아 작가의《3학년 2반 7번 애벌레》는 ‘나비의 한살이’를 주제로 애벌레와 아이들의 좌충우돌을 재밋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스테디셀러 동화입니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수업에서 플라스틱을 생물로 가정하여 ‘플라스틱 쓰레기의 한살이’를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원료인 석유가 공장에서 상품으로 가공되어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고객에게 판매됩니다. 사용 완료 후에는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되고, 일부는 재활용 혹은 재사용됩니다. 그 밖에도 부주의하게 버려져 비바람을 타고 하천을 따라 바다로, 깊은 산 속으로 흘러갑니다. 나비는 한살이를 마치고 분해되어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경우는 어떨까요? 낚시줄의 경우 분해되기까지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과연 분해된 낚시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요즘 어린이들은 언제나 맑은 실개천에 뛰어들어 장난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과 ‘기후위기’를 나누고 적극적인 동참을 권하는 일은 언제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그림책을 선정해 함께 나누는 일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수업 선정 도서《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는 물건이 생산되면서 사라지는 자연과 동물들의 서사를 그린 그림책입니다. 글밥은 적지만 탄생과 소멸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깊은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책 뒷면지의 마스크를 낀 주인공과 배추흰나비를 보고 많은 어린이들이 나비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우리가 살려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어린이들은 본능적으로 ‘희망’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나이를 떠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인이기에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어른들이 한발 더 앞서 준다면 어린이들의 부담은 한결 줄어들 것이고, 좋은 변화

도 한층 빨라질 것입니다.

식탁 위 계란프라이의 노른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된 ‘오호(OoHo)’는 초등학교 3학년 과학시간에 등장합니다. 최근에는 마라톤 경기, 패스트푸드 스스, 각종 음료에도 적극적으로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이 뜨거울수록 오호만들기 활동은 소란스럽습니다. 놀랍고 신기하기 때문이죠. 딱딱한 플라스틱 대신 말캉하고 미끌거리는 투명한 막 형태의 물병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오감을 만족시켰습니다. 먹어볼까 말까 망설이는 아이, 집에 가져가겠다며 조심스레 물컵에 담아가고 더 만들고 싶어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소하고 친숙한 일상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친환경적이고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찍이 인류가 주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 생활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난관 역시 사소함 속에서 놀라움을 발견하는 눈으로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음식 남기지 않기, 일회용품 재사용하기, 텀블러에 물 담아 다니기, 자연에서 놀며 아름다움과 감사함 느끼기, 소비 줄이기, 친환경 정책 요구하기처럼 우리의 사소한 행동과 습관들이 어린이들의 희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당신의 사소한 관심과 실천을 응원합니다.





식탁 위에서 얻은 아이디어, 친환경 물주머니 '오호' 만들기

준비물(1인 기준):

젖산칼슘과 알긴산나트륨을 제외한 준비물은 일회용의 재사용 또는 다회용을 권장합니다.

투명컵(아이스음료 일회용) 3개, 스푼빨대(슬러시 빨대) 2개, 플라스틱 숟가락 1개, 색소(물주머니 오호를 쉽게 관찰하기 위함), 젖산칼슘, 알긴산나트륨, 물(40°C 따뜻한 물 50ml, 미지근한 물 300ml), 접시

만드는 방법

① 작은 투명컵에 알긴산나트륨 2g(밀가루 느낌, 빨대의 스푼 부분이 가득차게), 식용색소와 따뜻한 물 50ml를 넣고 빨대로 저어주세요.

② 알긴산나트륨이 겔 형태가 될 때까지 빨대로 잘 저어주세요.(점성이 느껴질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③ 큰 투명컵에 미지근한 물 300ml와 젖산칼슘 5g(가루세탁세제 느낌, 스푼빨대 수북하게)을 넣고 물이 투명해질 때까지 깨끗한 빨대로 완전히 녹여줍니다.(단 시간에 잘 녹아요.)

④ 알긴산나트륨 녹인 용액을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가득 떠서 젖산칼슘을 녹인 물에 기울이지 않은 채로 한 번에 담그고 10초 기다립니다. 숟가락의 손잡이를 컵에 옆으로 톡톡 쳐가며 동그란 형태로 잠기도록 만들어 주세요.

⑤ 젖산칼슘을 녹인 물에서 응고된 오호가 터지지 않도록 젖산칼슘 녹인 물을 빈 투명컵에 천천히 쏟아부어, 컵에 동그란 오호만 남겨주세요.(숟가락을 이용하여 오호를 건져낼 경우,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완성된 오호를 접시에 담아 관찰합니다.

알긴산나트륨 용액을 젖산칼슘 녹인 물에 넣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오호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한방울씩 또는 주르륵 흘려 넣어가며 오호를 관찰해주세요.

에코 지능을 높여요

(글. 마을 활동가 선우정혜)



에코지능을 높여요!

‘에코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구를 위해,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실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어린이들과 이야기 하면서 특히, 에코지능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일상에서의 실천과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때 어린이들이 공감하며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수업이 어린이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실천의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할 재난

세계의 원유 유출 사건과 원전 폭발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그 영향이 전 세계에 걸쳐 있음을 수업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세대가 지구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닳아 없어질 때 까지 사용하세요.

어린이 친구들을 마을공동체 수업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수업 자료를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들었고 수업 날짜가 다가올수록 약간의 긴장도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는데, 이번 수업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주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습니다.
예코백 도안을 그리는 활동에서는 친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실용적인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환경문제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초록빛 상상력으로 채운
단 하나 뿐인 매거진 고리 에코백 어때요?



까먹어도 될까요?

(글. 마을활동가 조수정)



유성실 작가의 동화를 읽고 나만의 책갈피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까먹마을에 사는 잘 까먹는 다람쥐들과 아무것도 까먹지 않고 내 것을 잘 지키고 싶어 하는 줄무늬 다람쥐의 이야기입니다. 동화를 미리 읽고 온 어린이들이 좋았던 장면을 자연스럽게 말하며 서로의 느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조금은 흥분된 목소리에 덩달아 신나서 ‘동화를 함께 읽어볼까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약초 할머니 하고 싫어요.”를 신호탄으로 “애벌레를 하고 싫어요.”, “줄무늬 다람쥐 할래요.”등 목소리를 내며 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책 읽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책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화를 읽고 아기 다람쥐 줄무늬가 느끼는 ‘아깝고 억울하다’는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 됐는지, 왜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말했는지, 지진이 났을 때 다른 다람쥐들은 어떻게 줄무늬 다람쥐를 도울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더 싸울 수도 있지만, 더 잘 도울 수도 있어.”라는 작가님이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도 읽어주었습니다. 그림에 관심을 보인 어린이 중에는 경혜원 작가의 그림책을 읽어 봤다며 반가워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영민한 기억력은 좋아하는 책을 만날 때 더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활동은 재활용된 종이에 말린꽃과 열매를 이용해 자유롭게 그리거나 꾸미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장면을 떠올리며 책갈피에 다람쥐를 주인공으로 그리는 어린이들이 많았고, 몇몇은 줄무늬가 까먹지 않기 위해 만든 '쥐람다쥐람다' 마법의 주문을 적어 넣기도 했습니다. 책갈피를 만들고 그리는 모습이 제각각인데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 또한 보기 좋았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책갈피를 손에 든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뭘 까먹으면 좋을까요?”

“바나나요”, “한라봉요”

“뭘 까먹고 싶어요?”

“친구랑 싸웠던 거요”, “엄마한테 혼난 거요”, “슬펐던 일”

질문에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어린이들에게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약초 할머니가 줄무늬에게 “천재를 만들 때 마음도 만드는 것 같다. 기꺼이 고생하는 마음.” 또, “제일 잘 까먹는 게 누군가를 도와준 거다”라고 하네요. 어린이들과 책의 문장을 나누며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넘어 ‘함께’ 하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생기는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와 감탄으로 내 몫의 일들을 모두 ‘기꺼이’ 해보길 바라며 함께 한 어린이 모두 ‘마음 천재’로 건강하게 잘 자라길 열렬히 응원해봅니다.



book

오늘	우리	엄마	가	에	코	백	만
들	기	수	업	을	했	다	
엄	마	가	처	음	하	는	것
이	어	서					
나	도	팅	달	아	긴	장	도
이	만	모	두	중	아	하	여
이	중	았	다				
오늘	지	구	에	대	해	많	은
식	담	아	가	는	것	같	다
너	무	너	무	재	미	있	었
이	에	코	백	을	계	속	가
다	녀	야	것	다			
마	지	막	으	로	어	른	들
싶	은	말	은				
우	리	의	미	래	를	지	켜
그	런	안	녕	!			

문장 수집한 날 :

다찌
채다
70

[illegible]

55

55





9월의 마을 이야기



걸으며 바라보는 가을, 필름사진으로 기록하는 오늘

글. 마을활동가 김은영



늦은 가을바람이 도착한 아침이었습니다. 10월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옷차림은 가볍고 한낮의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돕니다. 오늘은 모처럼 선선한 가을바람이 피부로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오전 9시 30분 대전 현충원 호헌매점을 곁에 두고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잠자고 싶은 주말 아침. 편안한 잠옷차림으로 뒹굴뒹굴 집에서 시간을 보내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등장하는 아이들의 얼굴 표정은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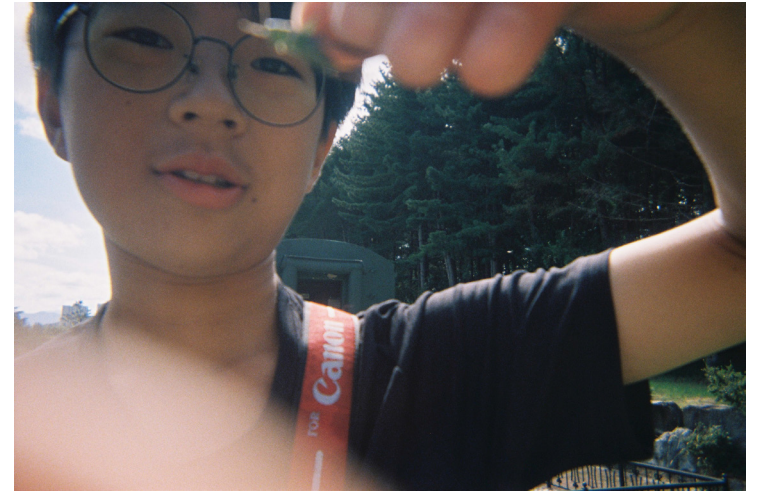
작년에 고리 마을매거진 활동을 하며 만난 친구들도 있지만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 어젯밤 저도 긴장과 설렘으로 수업을 준비했어요. 필름카메라를 처음 만나는 친구들에게 오늘의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사진을 취미로 시작했던 터라 필름카메라부터 디지털카메라까지 소장하고 있는 카메라들이 많아요. 아이들에게 카메라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필름, 현상, 인화, 디지털 스캔이 되는 과정을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어 곧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핸드폰이나 디지털카메라와 달리 사진을 찍는 장수도 제한이 있고 또 곧바로 볼 수 없는 필름카메라로 오늘은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조금 더 가까이 바라보고 내가 기록한 순간의 결과를 천천히 기다리는 즐거움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찍은 사진을 바로 볼 수 없기에 사진을 찍는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찍을 수 있는 사진의 장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내가 찍고 싶은 대상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짧고 빠르게 소비되는 숏츠와 미디어를 일상으로 만나는 아이들에게 천천히 바라보는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서랍에 잠들어있던 오래된 필름들을 꺼내어두고 먼지 쌓인 카메라들을 꺼내어
들자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일회용 카메라를 들고 걸어가
아이들의 걸음걸이는 제가 짐작한 것보다 신중하고 섬세했어요. 저는 제한된 시
간에 끝내야하는 활동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바빴는데 아이들은 떨어
진 나무에 매달린 나뭇잎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을 멈추어서
며 느끼는 것은 선생님인 제가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게 알려준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만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감각을 느끼는 것. 아이들이 남긴
사진에 모두 담겨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을 찍은 사진, 버려진 추모 꽃다발 더미에서 아름다운 꽃을 발견한 사
진, 나무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을 찍은 사진, 걸어가며 만난 현충원 곤충과 함께
걷는 친구들을 찍은 사진. 아이들이 남긴 사진을 바라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
니다. 사진의 이론이나 방법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아이들에게 자연을 바라볼
시간을, 작은 카메라를 손에 쥐어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아름다운 계절의 순간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지금이 아니었을까. 친구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순간. 떨어
지는 낙엽들을 하늘로 던지고 마음껏 뛰어노는 순간. 준비된 활동은 끝이 났지
만 아직 아이들의 하루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달
려 나갑니다. 친구의 손을 잡고 자연 속으로!







발로 엮은 이야기, 대전 현충원에 묻힌 진실을 들려드립니다

글, 사진 임재근 ((사)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출간된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의 3명의 저자 중 한 명인 임재근입니다. 저도 대전현충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6년 전에 대전현충원 후문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현충원을 더 자주 가게 되었어요. 지인들이나 주변사람들이 대전현충원을 찾을 때 가끔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보니 대전현충원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더 전문적으로 알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전현충원을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묻혀 있을까? 묘역마다 묘와 비석의 크기가 다르고 차이점이 있는데 왜 그럴까? 국립묘지 대전현충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묻힐 수 있지? 묘비에 적힌 글씨체가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독립유공자 묘역 묘비에는 사람 이름 위에 '애국지사' 또는 '순국선열'이라고 새겨 있던데 둘의 차이는 뭐지? 어떤 사람의 비석에는 이름 옆에 '배위'라고 써 있는데, '배위'는 무슨 뜻일까? '배위' 말고 '부군'이라는 글자도 보이는데 왜 '부군'이란 글자는 '배위'보다 적을까? 아주 가끔 이빨 빠진 것처럼 묘역에서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는 왜 생겼고, 그곳에 원래 묻혔던 사람은 누구지?

어쩌면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에 담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설하는 말투와 형식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그 시작은 저의 호기심을 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비슷한 호기심을 갖고, 비슷한 활동을 해 왔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김선재, 정성일 저자입니다. 혼자였다면 책을 내는데 더 오래 걸렸거나 어쩌면 출간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셋이서 함께 해서 출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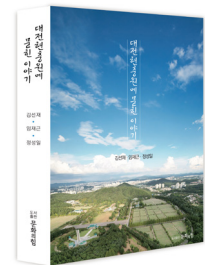
세상에 책을 내 놓고 보니 책 한권의 무게를 생각해봅니다. 실제로 이 책은 150cm*220cm 크기에 456쪽으로 두툼합니다. 질량을 재어 보니 811g입니다. 예전에 출판사 '보리'의 출판 철학이 '나무 한 그루 베어낼 가치가 있는 책을 만들자'라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세상에 내 놓은 책이 '나무 한 그루 베어낼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어요. 사실 그 가치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고 출판을 했습니다. 기왕 세상에 내 놓았으니 더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주시고, 책을 통해 감동을 받는다면 나무에게 덜 미안할 거 같아요.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는 손으로만 쓴 책이 아닙니다. 3명이 대전현충원에서 100번이 넘는 해설을 하면서 그 경험을 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꼭지의 글을 쓰기 위해 현충원을 몇 번씩 찾았습니다. 현충원뿐 아니라 다른 곳도 찾아 다녀왔습니다. 틈틈이 대전현충원을 둘러보며 수많은 묘비들과 마주하고, 무덤 사이를 걷다가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는 발로 쓴 책이기도 합니다.

대전현충원에는 15만 명에 가까운 인물들이 모여져 있지만, 그 중 이 책에 언급된 인물은 330여명 정도입니다. 책을 읽다보면 홍범도, 손기정, 곽낙원 등 잘 알려진 이름도 보이지만, 낯선 이름도 종종 눈에 띕니다. 서장에서는 대전현충원의 역사와 개요를 설명하고, 1장 '독립운동'에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독립 영웅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장 '군사반란'에는 군인 본분을 다한 참 군인과 얼룩진 삶을 산 기회주의자와 반란군 등 여러 군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장 '국가폭력과 사회적 참사'에는 제주4·3과 여순사건, 군의문사, 세월호 참사 등 한국 현대사의 여러 비극을 주목하며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인물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4장 '사회공헌'에는 자신보다 남을 위해 희생 헌신한 과학자, 소방관, 체육인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는 국립묘지에 모셔진 이들의 삶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함께 이야기를 파헤쳐주시겠습니까?









달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꼭꼭 눌러 담은 아이들의 소원

글. 마을활동가 김지혜



어린이 중심 우리마을 생태활동의 일한 네번째 수업으로 10명의 유성구 어린이들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추석과 관련한 그림책을 읽은 뒤 연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친구들이기에 추석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 배워본 적 있는 익숙한 명절이라 어떤 수업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것이 '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달'을 매개로 한 전통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달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는 음력과 절기, 달님에게 소원을 비는 전통으로 어린이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추석과 달의 테마로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그림책으로 《달빛 춤》과 《달에 간 나팔꽃》을 함께 읽었는데요. 수업을 진행하며 내내 인상깊었던 것은 그림책을 읽어줄 때 초롱초롱하게 빛나던 아이들의 눈동자였습니다. 어찌나 이야기와 그림에 집중을 하던지 수업을 준비한 저보다 더 예리한 관찰과 집중력으로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수업을 이끌어 가더군요.



어린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전시켜 나갈 미래

우리민족은 소나무처럼 언제나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닌, 왜 매번 모양이 바뀌는 달에게 소원을 빌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달이 차고 지는 것을 보면서 강인하고 무한한 생명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점점 커지는 달을 보면서 성장과 발전을 떠올리며,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길 소원했다고 해요.

수업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서 달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나날이 발전할 미래를 엿보았습니다. 수업 말미에 각자 달님에게 소원카드를 적어보았는데요. 무궁한 에너지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과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어린이들의 소원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마음이 우표가 되어, 빨간 우체통 서비스

글. 마을활동가 한성희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을이 반가운 편지처럼 도착했습니다. 버찌 책방에 도착한 아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오늘 활동이 너무 기대되는 표정이었지요.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편지를 쓰고 우체통에 직접 넣어보는 활동을 하기로 하는 날입니다.

편지쓰기 수업에 관련된 그림책은 이주홍 동화 작가의 「우체통」 책을 읽었습니다. 빨간 우체통에 일본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개떡을 넣은 아이의 마음

을 그린 동화책이었지요. 우체통 밑 땅속으로 수많은 길을 통해 편지가 오고 간다고 생각하여 편지 대신 개떡을 넣은 순수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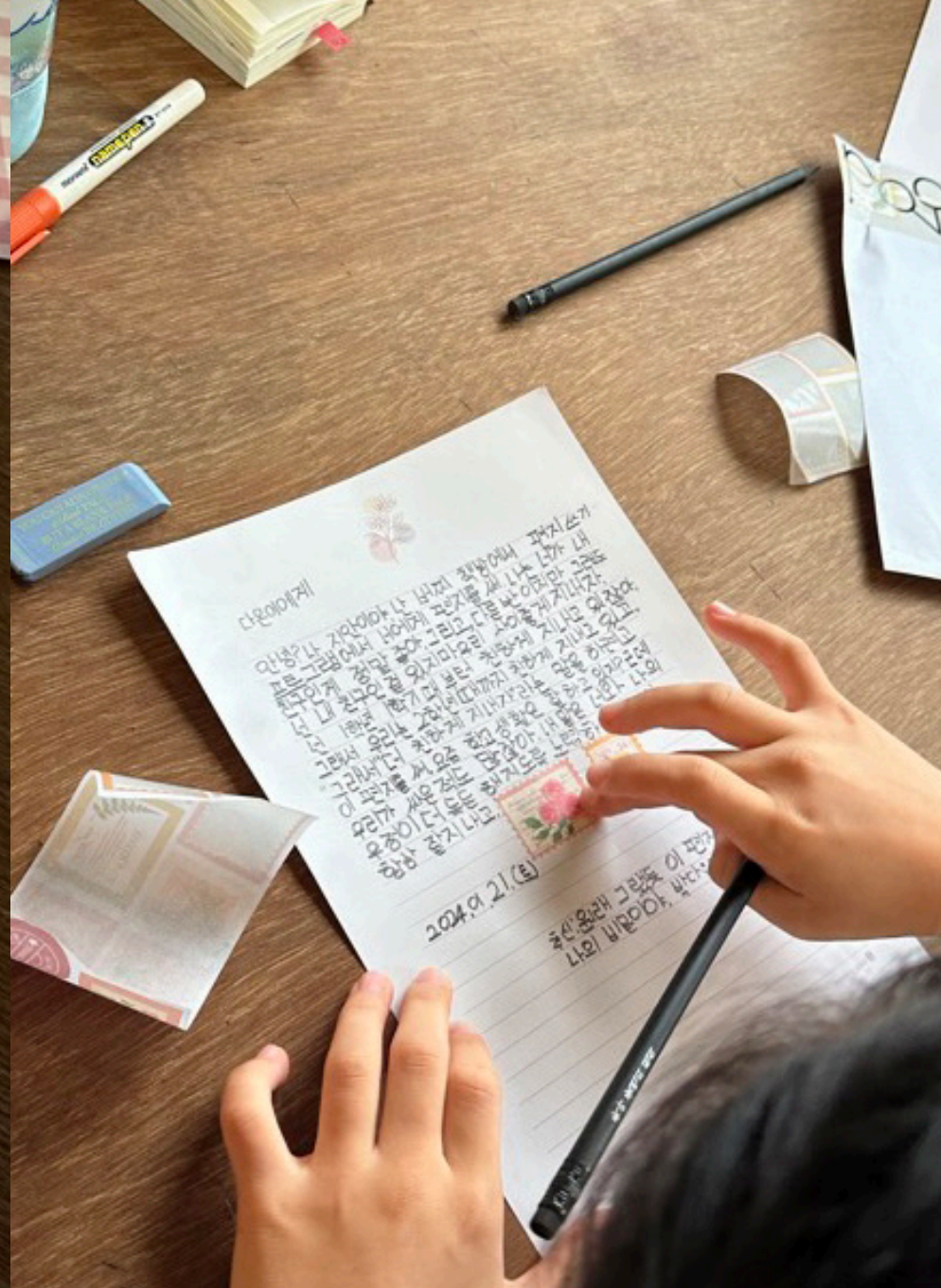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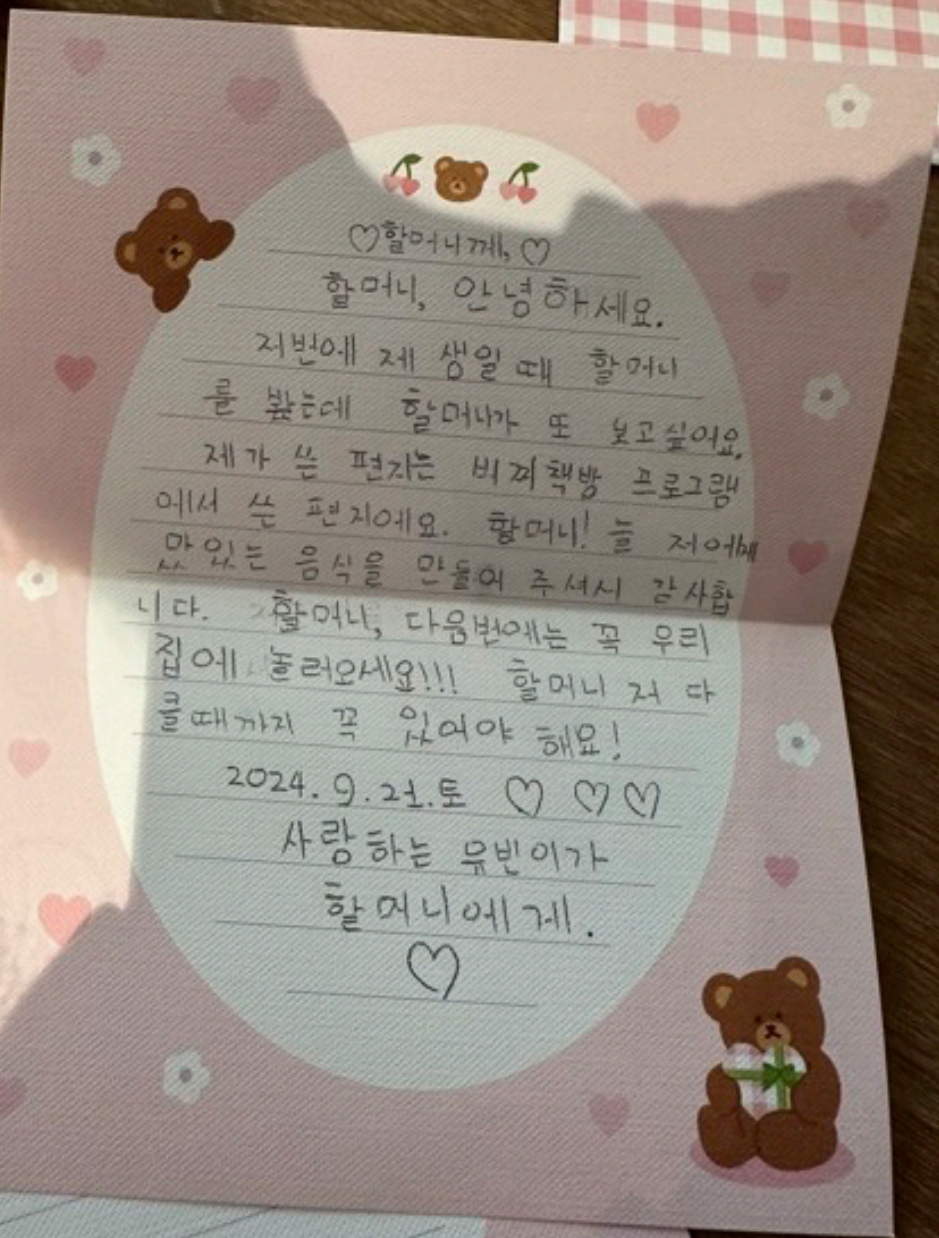
아이들은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본 적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자전거 타고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 아저씨 대신 택배 아저씨가 익숙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이들과 편지쓰기 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준비한 다양한 편지지와 봉투를 직접 고르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편지 쓰는 사람은 누굴까 하고 봤더니 가장 소중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부모님과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책방에서 만난 활동가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서 활동가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정성을 다하여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몇몇 친구는 손으로 편지를 가리고 썼습니다.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 아이들의 동글동글한 뒷모습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난 후 편지봉투를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편지봉투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적는 위치를 알려주며 주소 밑에 적혀있는 다섯 자릿수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우편번호에 대해 잘 몰랐는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라고 대답했어요. 또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받는 사람 주소를 정확하게 몰라 답답해했지요. 선생님이 수업이 끝난 후 주소를 알아내서 꼭 편지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쓴 편지에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직접 넣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편지에 우표를 붙여야지만 편지가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놀라워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소를 알아내고 아이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치 산타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 편지는 무사히 도착했을까요? 답장을 받은 친구는 있을까요?

편지는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사랑으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합니다.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써 내려간 편지는 느리지만 커다란 감동과 행복을 선물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맙고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이 우표가 되어 빨간 우체통을 통해 전해진 사랑은 받는 이의 마음을 붉게 물들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어린이책 읽는 사람들



어린이의 마음과 그것을 담는 그릇, 오세란 어린이책 평론가와의 모임

(글. 마을활동가 선우정혜)



오세란 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님의 수업을 통해 근대소설 초기부터 현대의 청소년소설에 이르기까지의 관계성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제도 밖의 자유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소설이 구체적이고 첨예한 담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단순히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되며, 어른들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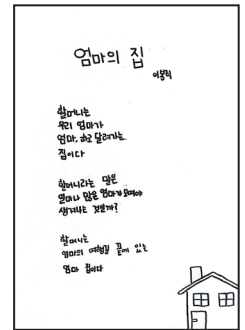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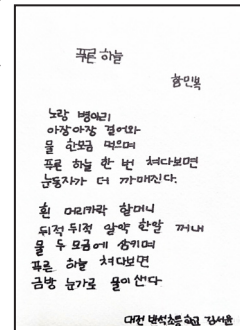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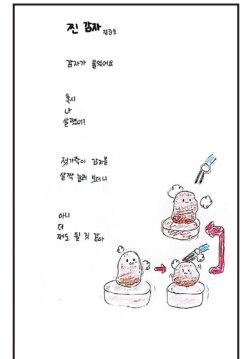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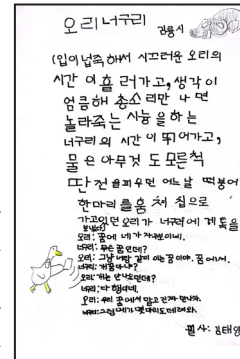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동시, 동화, 청소년 소설을 통해 마음을 읽으며 또 다른 것을 얻습니다. 요즘 아동문학에서는 다양한 어린이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어린이를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요.”

“가령, 그림책 <낙점반>을 떠올려 봅시다. 어린이는 시간에 길들여 지지 않고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 어른은 시간에 길들여진 존재이고요.”

“기대, 설렘, 두려움, 긴장 등 동화는 자라는 동안 제도에 적응해야 하는 어린이의 마음을 주제로 이야기 합니다.”
- 청소년 문학평론가 오세란

오세란 선생님과
모임을 마치고
각자의 가정에서
자녀와
동시집을 읽고
필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른쪽 이미지는
활동가의 자녀들의
동시 필사 기록이다.

어린이와 함께 읽은 동시집:
동시집 <내 마음을 구경함>
<노래는 최선을 다해 곡선이다>
<우리나라 좋은 동시>



우리마을 동화를 읽는 시민단체 “어린이도서연구회 대전지회”를 소개합니다!

글. 김라나(어린이도서연구회 대전지회장)

어린이도서연구회 대전지회(이하 ‘어도연’ 대전지회, ‘대전동화읽는어른모임’으로 시작)는 대전시에 등록된 사단법인 비영리 시민단체로 내년에 3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여름 뜨거운 열기를 뚫고 ‘유성구 와글와글 동네학당’ 사업을 통해 어린이와 어른들이 어도연 대전지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회 소개는 물론 회원들이 소품부터 녹음까지 직접 준비한 그림자극을 선보일 수 있어 뜻깊었어요. 책으로 만났던 옛이야기를 그림자극으로 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우리 회에 보내주시는 응원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유성구의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잡지 『고리』 두 번째 이야기’에 우리 회를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회원들은 어린이들이 좋은 책을 읽기 바라는 마음으로 아동청소년문학을 함께 읽고 나누며 공부하고, 책으로 더 많은 어린이를 만나고자 합니다. 아동문학의 주요 독자는 어린이지만 어른이 읽어도 감동적인 작품들이 많습니다. 모



임 중 아동청소년문학을 나누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깊숙이 잠들었던 내면 아이를 마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작품 속 아이에게 자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점은 아동청소년문학을 가까이 할 수록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 위주의 시선에서 우리 곁의 아이들에게로 확장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더 많은 어린이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회원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책읽어주기 활동은 학교,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등의 요청에 따라 방학을 제외한 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지속적인 활동으로 디지털 영상과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이 듣는 책에 흠뻑 빠지는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베풀어옵니다.



년문학을 같이 읽고, 곳곳에서 책으로 어린이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지향점이고 매력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도연 대전지회는 유성구 전민동 작은 공간에서 공부 모임을 갖고 활동을 준비합니다. 우리 단체에 대한 호기심은 물론 어린이와 아동청소년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더하고 싶은 분 모두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세요, 두 팔 벌려 환대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대전시 민간비영리단체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찾아가는 책놀이'란 타이틀로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정보 소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도심 외곽 학교, 특수학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대전시 소재 특수학교인 가원학교의 초등학생 전원(총 13학급)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고,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은 활동가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와 책으로 아이들에게 다정한 시간을 선사해주어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받았습니다.

활동 후에도 장애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읽고, 특수학교 교사이자 동화를 쓰는 공진하 작가님을 모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새벽 6시 반,
우리는 작은 책방에 모여
책을 읽습니다.

(글 & 사진. 이과 엄마들의 아주 멋진 독서모임)



혹시... 같이 책 읽으실래요? (모임장 박지현)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한 뼉 더 좋은 엄마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2년 전 육아휴직을 앞두고 동료들에게 남기고 온 글이다. 그동안 아이에게 미안한 내색없이 일에 집중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살았다. 대부분의 직장 다니는 엄마가 그렇듯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화살을 담담히 받아냈고, 또 회사와 집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다 휴직을 시작하고 엄마의 역할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이젠 남들보다 2배, 전에 미안했던 것들 다 갚아야하니 4배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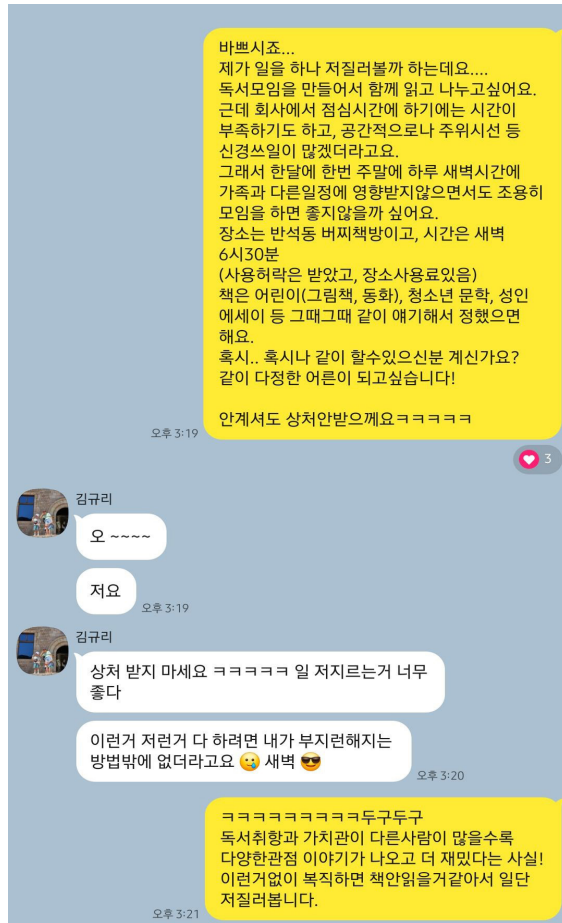
우연히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폭 빠지게 되었다. 육아서처럼 말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훌륭한 교육을 시키려고 눈빛을 반짝였던 내가, 『아빠 나한테 물어봐』, 『메두사 엄마』를 보고 묵묵히 지켜봐 주는 다정한 부모가 되고 싶어졌고,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의 ‘다현’이를 통해 나의 어린시절의 고통을 이해했고, 위로 받았다. ‘좋은 부모, 좋은 어른이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다시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

휴직 기간이 끝날 때쯤에는 이미 좋은 엄마가 된 것 같은 자신감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게 되었다. 아이는 엄마가 곁에 있으나 없으나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봐주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다.

복직 후에도 계속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읽고 싶었다. 이왕이면 책으로 얻는 감동을 나누고 동료들과 싶었다. 그래서 주변에 독서모임을 제안했고, 한달에 한

번 토요일 새벽,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에 모이기로 했다. 우리는 소
녀 같은 얼굴로 만나 책을 읽고 있다.

“나에게 독서모임은 용기 충전소 이다”



다 큰 어른도 성장합니다 (모임원 김규리)

매일매일 성장하는 아이들처럼 요즈음 나도 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사를 다니고 아이들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숨을 헐떡였다면, 이제는 블로그 글을 매일 쓰고, 정성껏 밥상을 준비하고, 근력운동을 하며 책을 읽는다. 일과 아이 외에 내 삶을 더 잘 영위하고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한 달에 한번 새벽에 모여 그림책과 청소년문학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독서모임 공이 크다. 낮선 새벽 시간대, 집에서 30분 걸리는 먼 책방에 모여 책을 꺼내 들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가족들과 분리되어 오롯이 나로서, 나의 이야기를 꺼낸다. 따스한 눈 맞춤을 하고 용기를 주고받아 나의 무의식 속에 덮어두었던 상처를 꺼내 보인다. 책을 매개로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안의 그릇이 11인분을 담아낼 만큼 어느새 커져 있다.

문학을 읽고 독서모임을 갖는 것은 어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이다. 『순례주택』의 순례씨 같은 할머니로 늙고 싶다는 소망을 갖는 것도, 『눈보라』의 북극곰을 보며 기후변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더 찾아보게 되는 것도 독서모임 덕이다. 현재 나는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야를 확장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중이다. 독서모임을 하며 앞으로 계속 성장할 내가 기대된다.

“나에게 독서모임은 사유와 공감의 시작 이다”

함께 읽은 문장, 나눠 가진 마음 (모임원 조아라)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숫자와 자료 속에서 유의미한 진짜를 가려내고자 온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다. 공학 혹은 자연과학을 전공한 이과 엄마. 비단 회사에서의 업무 만이 아니라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방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작업 스케줄링 하듯 동시에 여러가지 일의 실행순서를 정하여 진행하고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을 때, 만족감이 크다. 나의 의식은 이미 이러한 생활방식에 최적화되기는 했지만 가끔은 정돈된 세상에서 떨어져 다른 세계로 피난을 가고 싶은 때가 있다. 책 속으로.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얇은 인문지식이 짝을 이루고,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막연한 생각을 명쾌한 문장으로 만날 때, 경이로움을 느낀다.

이제는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생겼다. 열한 명의 지성과 감성과 경험이 모이니 아주 멋지게 책의 행간이 채워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고, 새로운 자극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한 번 더 웃게 되는 것은 덤으로 따라왔다.

그래서 우리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또 다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도 토요일 새벽 버찌책방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나에게 독서모임은 생각의 바람을 만나는 곳 이다”

프라이팬 예열하며 몇 줄, 계란 깨트려 넣고 몇 줄

(모임원 조빛나)

수학도 결국은 문해력이라는데 이참에 애들 독서 습관이나 같이 길러야겠다 라는 불순한(?) 의도로 시작한 새벽 독서 모임. 황영미 작가의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를 시작으로 모임 1회 만에 청소년문학의 매력에 푸욱 빠져서 8개월 동안 약 30권 가까운 아동/청소년 문학을 읽었다. 그 중 나를 가장 위로해준 책은 유은실 작가의 『순례주택』. 독립심 강한 주인공 ‘오수림’을 보며 독립심 강하게 클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의 나를 투영하고, 독립언을 많이 쓰는 ‘순례씨’의 다정한 말을 통해 그 시절의 나도 수림이와 함께 위로 받았다. 누구든 크고 작은 상처 하나쯤은 가슴속에 자리하고 많던 적던 어떠한 결핍이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성인 이어도 심지어 엄마가 되어서도 여전히 미성숙한 인간이기에 청소년 문학을 통해 위로 받는 건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당연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새벽 독서 모임을 시작한지 8개월, 지금은 프라이팬 예열하면서 몇 줄, 계란 깨트려 넣고 몇 줄, 뒤집고 나서 몇 자, 톳날 때마다 한 줄, 한 자씩 읽고 있다. 애들 문해력은 모르겠고 일단 나는 책을 통해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을 체득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독서 모임인데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한번 더 위로 받았다. 초대하고 함께 해주신 “이아독”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다.

“나에게 독서모임은 틈 사이 쉼 이다”

사춘기 2.0 (모임원 김민경)

결혼 전에는 일이며 생활이며 뭐가 계속 바빴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좀 핑계 같기도?) 아이를 키울 때는 정말 물리적으로 내 시간이 없었다. (이건 진짜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가 되니 나를 돌볼 시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짧지만 소중한 내 시간이 생겼는데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어주고 싶은 마음에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읽는 독서모임으로 내 소중한 시간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이러니한 시작이었지만 이 모임은 나를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내 행복감이 새어 나와 아이도 시나브로 물들어 감을 느끼게 한다.

새벽 6시반, 우리가 온전히 '나'로서 함께 만나는 신성한 시간이라 정말 소중하다. 함께 책을 읽어가는 한 달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은 나에게 책과 더불어 살게 하는 마중물이 되어주었다. 혼자 읽었다면 절대 느끼지 못할 감정과 해석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이걸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 책 속의 인물들과 이야기는 내 유년시절의 빈 곳을 채워주고 그동안 잘 해왔다는 위로도 편하게 해준다. 덕분에 제 2의 사춘기를 기분 좋게 겪고있다. 내 주변 지인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어린이/청소년 문학! 이걸 꼭 어린이나 청소년만 읽어야 하는 게 아니더라구! 한번 읽어보길!!

“나에게 독서모임은 스무살의 마중물 이다”



잠 대신 책, 새벽6시의 기적 (모임원 조윤희)

다음 한 주의 체력을 얻기 위해 주말 아침은 매번 잠으로 채운다. 그러나 그 잠을 쫓고 24년 3월을 시작으로 매달 한 번 새벽 6시면 가는 곳이 있다. 그 곳은 조용한 우봉산 아래의 버찌책방. 이아독 모임 장소다.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땐 회사와 육아로 책 읽을 시간이 있을 지, 수면부족을 이겨낼 수 있을 지 걱정 한 가득이었다. 그런데 모임을 하며 깨달았다. 모임을 거듭할 수록 피로누적이 아니라 마음의 힘과 삶의 활력을 얻고 있음을.

몇 년간 책을 읽지 않았던 내가 회사 가기 전 잠깐, 아이들 샤워할 때 잠깐, 자기 전 잠깐을 모아 책을 읽을 수 있음을 말이다. 책을 멀리했던 나에게 소설 책 특히 어린이/청소년 문학과 그림책을 추천해 주고 나눠주는 동료들과 함께 나의 현재가 채워지고 있음에 감사하며 10번째 모임을 기다린다.

“나에게 독서모임은 새벽의 선물 이다”

똑똑 새벽을 열어요. (모임원 김민정)

책과 새벽 시간이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었다. 특히나 같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상상 이상의 일이었다. 독서모임을 시작한 이후 동화, 청소년 문학,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책에 대한 스스로의 편견을 깨어나가는 중이다.

낮과 밤시간 모두 온전한 나의 시간을 찾기 어려웠다. 새벽시간은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책과 새벽 시간의 연결고리는 ‘이아독’모임을 시작하면서 생겨났고, 그 공간인 ‘버찌책방’ 과의 인연도 시작되었다. 이 공간에서 정해진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었다. 지난 일년 정도 한달에 한번의 모임이 나의 일상에는 큰 변화를 안겨주었다. 이제는 일상에서도 ‘가끔 서점에 가서 책을 봐야지’라는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된다.

“나에게 독서모임은 마음을 나누는 곳 이다”



나도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모임원 장경희)

처음 새벽 독서 모임을 제안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참석했던 이유는 새벽이 주는 의미 있는 시간과 아동/청소년 문학이라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시간만큼은 엄마의 자리를 비워도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안함이 덜한 시간이며 (그래도 죄책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이겠지) 하루 중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추천해 준 책을 읽고 적어도 오늘날만큼은 모임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순례주택』의 ‘순례씨’처럼 『밤티 마을 시리즈』의 ‘팔쥐 엄마’처럼, 『여름 한 입 베어 물었더니』의 ‘코치님’처럼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누군가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어른이 되길 희망한다.

“나에게 독서모임은 마음 치유 클리닉 이다”



독서 여행 핫플레이스, 여기 어때! (모임원 김경희)

“이아독”과 함께 한 새벽 시간은 설렘을 안고 떠나는 여행과 같은 시간이었다. 내 안에 깊이 숨어있는 나와 만나는 여행,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너무나 다른 나의 두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여행,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니 다름이 여실히 느껴지는 나의 반려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는 여행..

『불량한 자전거 여행』작품에서는 ‘호진이’와 자전거 여행을 떠나며 복잡한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기도 하고 『기소영의 친구들』, 『망가진 정원』을 읽으며 죽음이라는 경계에서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순례주택』의 ‘수림이’와는 가족이라는 소중함과 부모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행도 경험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만의 고민을 들으며 우리 아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조언해 주었을까를 깊이 고민하며 아이와 내 마음의 간극을 점점 좁혀갔고, 어린이/청소년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며 자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는 한층 성장했다. 황홀한 여행에 기꺼이 함께해 준 동료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고맙다.

“나에게 독서모임은 여행가기 전날 밤 설렘과 같은 곳 이다”



10번의 만남을 통해 만나게 된 어린이 & 청소년 책 목록

동네

여섯번째 모임

1. 이제정말 나일까 / 요시타케 신스케 / 주니

어김영사

2. 페이스 / 이희영 / 현대문학

첫번째 모임

1. 어린이와 그림책 / 마쓰이 다다시, 이상금 / 샘터

2. 아빠, 나한테 물어봐 / 버나드 와버, 이수지 / 비룡소

3. 메두사 엄마 / 키티 크라우더 / 논장

일곱번째 모임

1. 불량한 자전거 여행 / 김남중 / 창비

2. 관찮을꺼야 / 시드니스미스 / 책읽는곰

두번째 모임

1.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 황영미 / 문학동네

2. 화요일의 두꺼비 / 러셀 에릭슨 / 사계절

여덟번째 모임

1. 기소영의 친구들 / 정은주 / 사계절

2. 망가진 정원 / 브라이언 라이스 / 밝은미래

세번째 모임

1. 순례주택 / 유은실 / 비룡소

2. 빨간열매 / 이지은 / 사계절

아홉번째 모임

1. 엄마는 페미니스트 /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 민음사

2. 아기돼지 세자매 / 프레데릭 스테르 / 파랑새어린이

네번째 모임

1. 눈보라 / 강경수 / 창비

2. 조막만한 조막이 / 이현 / 휴먼어린이

3. 옛이야기 들려주기 / 서정오 / 보리

3. 아기늑대 세마리와 못된돼지 / 헬렌 옥스버리 / 시공주니어

열번째 모임

1. 클로버 / 나혜림 / 창비

2. 오늘부터 배프 베프 / 지안 / 문학동네

다섯번째 모임

1. 할머니 어디가요 앵두따러간다 / 조혜란 / 보리

2. 여름 한 잎 베어물었더니 / 이꽃님 / 문학



우리 지역 출판사, 이유출판의 이유 있는 10년

(인터뷰이. 이유출판 유정미 대표 & 인터뷰어 버찌책방 조예은)



작은 책방을 하다보면 머리보다 마음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독립 출판도 마찬가지. 투입한 나의 노동과 시간, 비용을 따지고 들면 책방도 출판도 명쾌한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마음'이 빠지면 지속하기 어려웠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 순간, 더이상 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할 수 없었다.

책을 좋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또 다른 누군가의 순수한 마음이었다. 책방을 통해 만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 일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던 시간들은 아직 단단히 뿌리내리지 못한 내 마음을 바로 세워주었다.

형체도 없던 이동식 책방 시절부터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유정미 대표님은 책방 지기에게 파트너이자 인생 선배가 되어주신 고마운 분이다. 같은 지역에 책으로 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음으로 예측하기 힘든 일을 정면 돌파할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일이 가져오는 사소한 것들을 소중하게 그려모으는 신중함을 배웠다. 책으로 하는 일의 고됨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여유 또한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작은 책방과 작은 출판사가 마음을 주고 받으며 쌓은 시간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았다. 이유출판과 버찌책방의 첫 기획전시 <당신은 어떤 공간에 머물고 싶은가요>는 그 결과물이기도 하다. 단순한 북 큐레이션을 넘어서 지역 안에서 콘텐츠와 콘텐츠가 만들어 내는 또 다른 콘텐츠, 협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마음으로 만들어 낸 길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있다. 혼자가 아픔을 깨달았으니 그 길 위에서 외롭지만은 않을거라 믿는다.

버찌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을 가르치는 삶, 출판사 대표로서의 삶을 병행해 오는 것으로 알아요. 어떻게 두 가지 일을 같이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유정미 저는 대전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교수입니다. 이유출판이라는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 저는 출판디자이너예요. 책과 잡지를 만드는 잡지 디자인을 10년 정도 했는데 저와 아주 잘 맞았어요. 근데 회사에서 잡지 아닌 다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길로 회사를 그만두고 제게 안식년을 준다는

의미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죠.

3년 정도 영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디자인 사무실 내고 강의를 다녔어요. 그러다 2004년에 대전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돼 오게 되었어요. 워낙 잡지 일을 좋아했기에 학생들과도 같이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게 계기가 되어 대전 원도심을 아카이빙하는 <오! 대전>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죠. 원도심에서 낡고 오래된 것의 가치를 발견해 잡지를 만들고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작해서 올해 8년째네요.

이유출판은 2014년에 건축가인 남편의 제안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워낙 디자인을 좋아해서 출판사를 열 생각은 없었는데 남편은 오랜 로망이었나 봐요, 남편의 꿈을 위해 하게 된 거죠. 근데 막상 하고 보니 저도 재미있어졌어요. 출판은 단지 책을 만드는 일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삶을 담는 작업이잖아요. 디자인만 했더라면 몰랐을 면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디자인보다 출판에 더 기울어 있는 듯해요. 올해 9년 차고 내년이면 10년이 되네요.

버찌 수년 동안 대전 로컬 콘텐츠를 발굴, 기획해 잡지로 꾸준히 출판하는데요. 지역의 이야기를 찾고 기획하는 동력과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유정미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내가 사는 동네를 직접 발로 뛰며 제대로 알아보자, 이런 뜻이었어요. 2013년부터 대전 원도심 곳곳을 훑으며 아카이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소개하는 리서치 북을 만들고, 전통시장 이야기를 담은 잡지를 발행했어요. 그러다가 학생들 작업을 눈여겨보던 '성심당'이 2016년에 후원을 제안했어요. 동시에 학교도 지원을 해주었고요. 그때부터 공식적인 명칭을 '오!대전'으로 정하고, 옛 충남도청에서 1회 전시를 시작으로 매년 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한 호에 한동네'를 표방하며 원도심 기록 잡지 <오! 대전>도 발간하고 있고요. 이 잡지의 6호인 <창조길>은 원도심에서 5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철공소 거리를 찾아 이들의 삶을 기록했어요. 이 콘텐츠는 나중에 이유출판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되었어요. 지역의 5개 출판사가 함께 기획한 '어딘가에는 시리즈'에 참여하면서요. 이 출간물은 2022년 제63회 한국출판문화상 편집 대상을 수상했어요. <오! 대전>은 복이 많은 프로젝트예요. 시작할 때부터 저희 취지를 공감해 준 시민들이 응원해 주셨고 기업들이 후원하면서 점점 커가게 되었거든요.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도시에 애정을 갖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좋게 봐주신 거 같아요. 저는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도시에 남아 이 활동을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버찌 이유출판에서 만든 책 중에 더 많은 독자에게 가닿기를 바라는 책이 있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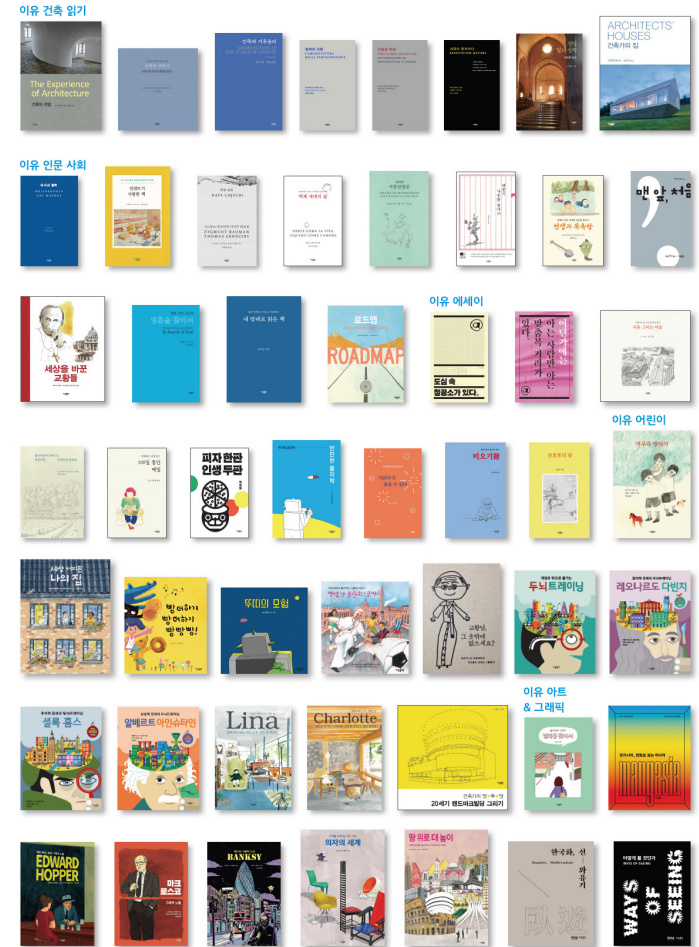
유정미 이유출판은 건축 분야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 관련 책은 많이 알려졌어요. 상대적으로 에세이 책은 덜 알려졌는데요. 그중 더 많은 분에게 가닿았으면 하는 책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산골기업, 군겐도를 말하다』입니다. 인구 500여 명의 산골에서 100여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라이프스타일 기업, 군겐도. 설립자인 마쓰바 도미를 인터뷰한 대담집인데요. 남편 고향인 오모리 마을로 들어가 수작업 소품 일로 시작해 일본 전역에 30여 개의 직영점을 낸 패션기업으로 성장한 군겐도를 일군 이야기입니다. 도미는 낡고 오래된 전통 가옥을 하나씩 고쳐 가면서 마을을 되살려냈어요.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관 주도적이고 마

을의 전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창의적인 개인이 오래된 것의 가치를 살려 마을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찌 출판이나 출판사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짧게 조언해주실 수 있나요?

유정미 어떤 책을 내고 싶은지 그게 분명하면 될 거 같아요. 출판은 결국 사람의 생각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어떤 모습으로 담아낼 건지 그게 뚜렷하면 독자들과 깊은 교감이 되는 거 같아요. 한마디로 자기 목소리가 확실하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유정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2023.5)





나의 동네를 말하기



2024/09/28

학교

(글. 외삼중학교 3학년 김채은)



거의 매일 익숙하게 와 있는 곳, 집에 가고 싶다고 하루에도 열 번씩 말하는 곳, 지겹게도 보는 이곳이 왜 좋냐고 묻는 말이 들리는 듯하다. 하지만 나에게 학교, 라고 하면 운동장 잔디밭에 누워서 올려다본 해가 찢찢하고 구름이 떠다니는 푸른 하늘, 그 옆의 적색 트랙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뿐이다. 물론 문득 본 하늘이 구름 가득한 회색이었던 날도, 하늘 같은 건 보기 싫을 정도로 피곤한 날도 일 년 중 며칠(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런 날들이 기

역을 조금 더 더듬어야 보이는 것은 전부 잊은 때문이 아니라 흐린 날을 거치며 맑은 날을 웃으며 더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는 나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준 곳이다. 난생 처음 겪어 보는 시험, 처음 만나는 친구들, 동아리 활동까지 힘들었던 점은 많고도 많다. 하지만 결국 친구들, 선생님과의 추억, 속상할 때 들었던 따뜻한 말 한 마디를 더 기억 깊이 간직하고 있다. 학교에는 내가 그동안 깨닫고 배운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단연코 물리적 공간 그 이상이다.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학교의 풍경을 더 눈에 담으려 한다. 초록색 농구장 바닥에 세워진 간이 농구 골대와 가을의 단풍이 꽤 잘 어우러진다. 피구장 계단에 앉아 노란색 잎이 바람에 파도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세 번째 눈에 담는다. 그동안 연체도 되고 책도 많이 읽지 않아 발걸음을 한동안 끊은 도서관에도 다시 가보았다. 점심시간에는 화분 옆의 야외 벤치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다. 교실에서 친구들과 공부하며 가끔 듣는 농담이 좋다.

졸업 전 다시 한 번 학교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때, 그때는 맑은 날의 기억이 조금 더 많이 떠올랐으면 해서 학교에서 하늘을 한 번씩 더 올려다 보게 된다. 앞으로 이 학교에서 남은 시간 만큼의 장면, 또 다시 나의 성장을 담아줄 새로운 학교의 풍경이 기대되는 하루다.

아이스크림 할인점

(글. 외삼중학교 3학년 이서하)



여름은 덥다. 땅바닥에 쨍한 햇빛이 일렁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도 울렁거리는 것만 같다. 집과 학교, 학원을 오가며 두 발 종종거리는 삶을 살고 있는 나로서는, 울렁이는 마음에 온갖 걱정거리와 혼란이 더해져 마음속 심장을 울컥 토해내는 것은 아닐지 두렵기까지 하다. 내 시험 점수를 본 수학 학원 선생님은 내가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코웃음을 칠지도 모른다. 내 점수는 흡사 연쇄 살인범의 범죄 현장과 동일한 참혹함을 지녔으므로, 선생님이 내 인생의 공사

다망함에 핀잔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일이다. 어쩌면 선생님은 나를 하루종일 들판에서 뛰노는 망아지쯤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나름대로의 바쁜 인생 속에서 살고 있다. 학업이니, 친구 관계니, 하는 흔해 빠진 대명사 또한 내 인생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찬 마음과 함께 여름을 느끼며 내 머리는 금방이라도 타버릴 듯이 열기를 내뿜었고, 나는 그 열기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을 찾아 헤맸다. 학교가 끝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학원 건물에 입성하기 직전 들어간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나에게 그런 존재였다.

자동문이 열리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마중 나오며,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질이는 그곳은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파란색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로 가득 차버리곤 한다.

냉장고를 두 눈 빠지게 내려다보며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시간만큼은 미루고 미루다 결국 다 끝내지 못한 수학 숙제를 잊을 수 있다. 서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며 등 떠미는 아이들의 실없는 우스갯소리를 듣다 보면 망쳐버린 시험 따위는 어느새 마음 한구석에 숨어버린다. 신중하게 골라낸 초콜릿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뜯어 한 입 베어 물면 복잡하고 씁쓸한 친구 관계가 조금은 달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학교 앞에 자리 잡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습관처럼 다시 찾는다. 내 어린 마음에 달콤함을 넣어주기 위해서.

여름은 덥다. 숨이 턱 막혀오는 후덥지근한 공기가 몸을 감쌀 때 주변에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문을 열어보기를 추천한다. 시원한 달달함이 새로운 여름 냄새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2024/09/28

강지혁	윤아인
기연우	윤유림
김경민	윤제이
김수진	윤준
김수현	이가영
김승후	이규빈
김지안	이예광
김태양	이인영
노하린	이주원
노하진	최연우
민경윤	최하람
배지윤	홍유빈
안하린	
안하울	



유성구 마을 매거진 고리
2024 vol.2

고리

발행일 2024년 12월 24일

발행 마을교육공동체 연결고리

편집 버찌책방 조예은

활동 진행 및 집필 김은영 김지혜 선우정혜 정지예 조수정 한성희

제호 스튜디오 슬로먼트 탁지은

예산 지원 유성구청 교육과학과



이 매거진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복이음교육지구와
유성구 나래이음교육지구 마을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제작 되었습니다.